

韓国古文獻の世界

平成30年度京都大学図書館機構貴重書公開展示図録

한글서체
한글서체
한글서체

ご挨拶

京都大学図書館機構では、京都大学が所蔵する貴重資料を学内外に公開し、広く市民の方々にも親しんでいただく機会をご提供するために、数年に一度展示会を開催しています。今年は、「韓国古文献の世界—京大河合文庫目録刊行記念」と題して、京都大学附属図書館、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及び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の三者の協力により実施している共同事業の成果を紹介する展示を企画しました。

京都大学附属図書館、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及び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は、2015年2月に協定を締結し、京都大学附属図書館が所蔵する韓国古文献の調査、書誌情報・解題の作成及び資料の電子化を行う共同事業を推進してまいりました。このほど、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及び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からそれぞれ日本語、韓国語で河合文庫目録が刊行される運びとなり、それを記念して日韓の研究者が集う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のに合わせ、実際の資料をご覧いただける貴重書公開展示を開催します。

共同事業の主な対象である河合文庫は、朝鮮史と経済史を主に研究していた河合弘民博士(1872-1918)が収集した韓国の古文献で、1919年博士の遺族より購入し特殊文庫として設置したものです。その内容は公私の文書記録、政治、経済、宗教、風俗など多方面にわたり、朝鮮の社会史ならびに文化史、とりわけ財政史の研究に必須の貴重なものです。このほかにも、京都大学附属図書館が所蔵する貴重資料から選定した韓国古文献が、本事業の対象となっています。

2015年に事業を開始してからこれまでに、資料調査、資料電子化のための撮影ともに、それぞれ5回にわたり実施しています。資料調査の成果をもとに詳細な書誌情報・解題を作成し、劣化が進んだ資料は資料撮影に先立って修復も行っています。電子化した画像は、書誌情報・解題とともに、順次インターネットでの公開を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今後も追加的な資料調査、共同研究など、引き続き三者の協力を進めていく所存です。

今回、河合文庫目録を刊行してその全貌を明らかにしたこと、河合文庫を中心とする韓国古文献貴重資料の電子画像をインターネットで公開したことにより、これらの貴重な資料を活用した研究が世界の研究者の間でも発展することを期待します。また、研究者だけでなく、一般の方もインターネット上で自由に資料に触れら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から、日韓両国間の学術・文化交流が盛んになることを願ってやみません。

2019年2月
京都大学図書館機構長 引原 隆士



目次

ご挨拶	P.1
韓国古文献の世界 総説	P.3
解題	P.7
京都大学における 貴重資料の修復について	P.27
資料電子化と画像の インターネット公開	P.29

인사말

京都大學圖書館機構에서는 京都大學이 소장한 귀중한 자료를 대학 내외에 공개하여 널리 시민 여러분에게 알려 드릴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수년에 한번씩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韓國古文獻의 世界—京大河合文庫目錄刊行記念」이라는 제목으로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및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의 세 기관이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는 공동사업의 성과를 소개하는 전시를 기획했습니다.

京都大學附屬圖書館,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 및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은 2015년 2월에 협정을 체결하여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 소장한 한국고문헌을 조사하여 서지정보, 해제 작성 및 자료의 디지털화를 공동사업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성과의 하나로 이번에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와 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院에서 각기 일본어와 한국어로 河合文庫目錄을 간행하게 된 것을 기념하여 일본과 한국의 연구자가 모여 심포지움을 개최하게 되었기에, 이 기간을 전후하여 실제의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기 위한 귀중서 공개전시회를 아울러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사업의 주요 대상인 河合文庫는 조선사와 경제사를 주로 연구하신 河合弘民(가와이 히로타미) 博士(1872-1918)가 수집한 한국고문헌으로 1919년에 박사의 유족으로부터 구입하여 특수문고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공사의 문서기록, 정치, 경제, 종교, 풍속 등 다양한 방면에 관계되어 조선시대의 사회사 및 문화사, 특히 재정사의 연구에 있어 필수인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 밖에도 京都大學附屬圖書館이 소장한 귀중자료에서 선정한 한국고문헌이 본사업의 대상입니다.

2015년에 사업을 개시한 후 지금까지 자료 조사 및 디지털화 촬영을 각각 5회 실시해 왔습니다. 자료조사의 성과바를 탕으로 상세한 서지정보, 해제를 작성하고 훼손이 심한 자료는 촬영에 앞서 복원작업을 실시 했습니다. 디지털화 된 화상은 서지정보, 해제와 더불어 순차적으로 인터넷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자료조사 및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계속적으로 세 기관의 협력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河合文庫目錄을 간행하여 그 전모를 밝히고, 또 河合文庫를 중심으로 한 한국고문헌 귀중자료의 디지털 화상을 인터넷상에서 공개한 사실이 계기가 되어 이들 귀중한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세계 각국의 관련 연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인터넷상에서 자유롭게 자료를 볼 수 있게 되었기에 앞으로 일한 양국간의 학술 문화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2019年 2月

京都大學圖書館機構長 引原 隆士(히키하라 다카시)



목차

인사말	P.1
한국고문헌의 세계	
총설	P.3
해설	P.7
교토대학에서의 귀중자료	
복원에 대하여	P.27
자료 디지털화와	
화상의 인터넷 공개	P.29

展示総説

「韓国古文献の世界」 「한국고문헌의 세계」



■ 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韓国古文献調査に関する協定

京都大学附属図書館および人文科学研究所と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は、2015年2月、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の韓国古文献の調査、研究に関する協定を結んだ。この協定は、古文献の調査、整理だけでなく、損傷した資料の修復、書誌目録の刊行、共同研究成果にもとづく学術シンポジウムおよび展示会の開催をも含む点で、既存の類似の協定とは異なる意義を有するものである。この四年間、三つの機関は緊密な協力体制のもと、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の主要な韓国古文献を調査し、その価値を広く学界に紹介しうる成果を収めた。

■ ホームページを通じて原文画像の公開

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の韓国古文献調査のため、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の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センター長、鄭雨峰 高麗大学校国語国文学科教授）は、過去四年間、韓国学中央研究院の支援を受け、年に1・2回、附属図書館と人文科学研究所の協力のもとで訪問調査を実施して、資料の詳細な書誌情報を整理し、また原文の画像を高画質でデジタル化し、さらに3,200点に及ぶ古文書を翻字した。この成果を元に構築されたデータベースは京都大学附属図書館と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のホームページ上において、順次一般に公開されている。これによって、従来の閲覧の不便が解消され、全世界の研究者および一般の方々が、貴重な資料をたやすく利用できるようになったことの意義は大き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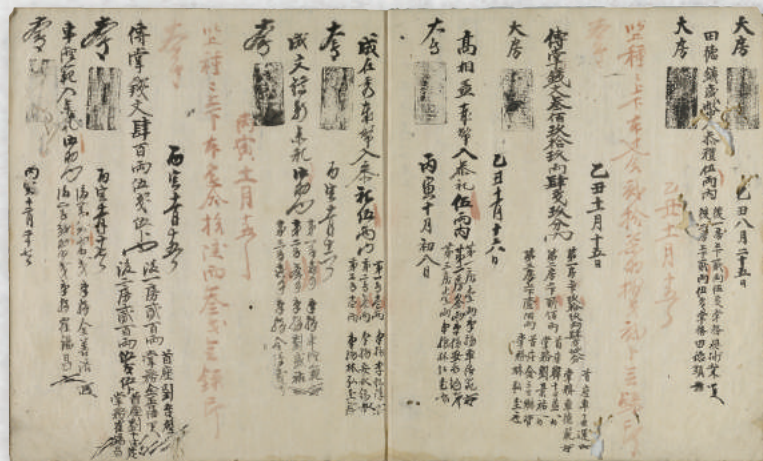
■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에 관한 협정체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院長 金炯瓚) 은 일본의 대표적인 한국고문헌 소장 기관인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館長 引原隆士), 경도대학을 대표하는 인문과학연구소 (所長 高木博志) 와 2015년 2월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 및 연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정체결은 한국고문헌의 조사 및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훼손이 심한 주요 자료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고 또 서지목록집 출간, 학술대회를 통한 공동 연구, 도서 전시회 개최로 발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협정체결과 차별되는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난 4년간 세 기관은 긴밀한 상호협조를 통해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중요 한국고문헌을 조사하고 그 가치를 학계에 소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원문이미지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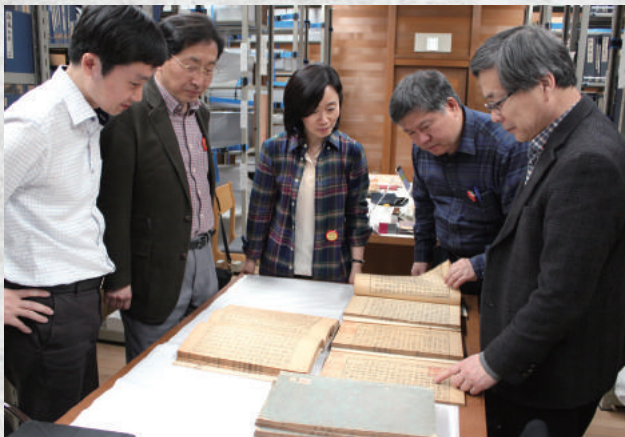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한국고문헌 조사를 위해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해외한국학자료센터 (센터장 鄭雨峰 高麗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教授) 에서는 지난 4년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해마다 한 두 차례씩 방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방문조사기간에는 부속도서관과 인문과학연구소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 자료의 상세서지정보를 정리하고 원문이미지를 고화질로 디지털화하였다. 또한 3,200여 건의 고문서를 脫草하였다. 이렇게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와 경도대학 부속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고 있다.





■ 京都大学河合文庫収集の経緯

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の韓国古文献の中で、もっとも重要かつまとまったものは河合文庫所蔵の資料である。河合文庫は、河合弘民博士が収集した朝鮮王朝時代の典籍および古文書からなる。河合博士は明治5年(1872)11月名古屋で生まれ、同31年(1898)東京帝国大学文科の史学科を卒業後、山形、静岡などの中学校で教鞭を取り、同40年(1907)東洋協会専門学校(現在の拓殖大学の前身)京城分校の主任として朝鮮に渡った。朝鮮滞在中、朝鮮王朝時代史、特にその財政に関する研究を行うかたわら、関連古文献を収集した。その後、日本に帰り、大正2年(1913)より5年(1916)まで京都帝国大学文科の東洋史講座で朝鮮史を担当、5年(1916)には『李朝税制ニ関スル研究』により京都帝国大学から博士号を授与されたが、7年(1918)10月12日、病気のため逝去された。享年47歳であった。翌8年、当時京大の助教授であった今西龍博士(1875-1932)の斡旋により、遺族より旧蔵書793部2,160冊が京大附属図書館に購入された。古文書も同時期に一括購入されたものと思われる。



그동안 해외에서 경도대학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한국고문헌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도서관을 찾아 가서 자료를 보아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해외한국학자료센터와 경도대학 부속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원문이미지는 전 세계 어디서나 연구자나 일반인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손쉽게 실물에 가깝게 책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문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경도대학의 가와이문고 수집 경위

경도대학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872-1918) 박사가 조선사 연구 자료로 수집한 조선 전적과 고문서로 이루어졌다. 가와이 박사는 1898년 동경제국대학 문과를 졸업하고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07년 동양협회전문학교 경성분교의 교장으로 취직하면서 조선으로 건너왔다. 가와이 박사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사 특히 재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각 방면의 조선 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이후 1915년 동양협회전문학교의 동경 본교로 돌아가 교수로 재직하다가 1916년 8월에 「조선 세제에 대한 연구」로 교토대학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고 1918년 세상을 떠났다.

가와이문고는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 사후 1년 뒤인 1919년, 경도대학도서관에서 당시 문학부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던 이마니시 류(今西龍, 1875-1932)의 주선으로 가와이 박사의 유족에게 793종 2,160책을 매입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가와이 히로타미와 이마니시 류는 당시 대표적인 조선사학자이자 장서가로 1900년대 초에 조선에서 활동하며 한국고문헌을 수집하였다. 일본에 귀국한 뒤에도 인연을 이어나가 가와이 히로타미 사후에 이마니시 류의 주선으로 경도대학 도서관에서 가와이의 장서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 河合文庫所蔵資料の特徴

河合文庫には現在、古書約832種、古文書約3,200点、拓本30余点、書画10余点が所蔵されている。これは日本国内における韓国古文献所蔵として有数のものであり、特に古文書は量的にも質的にも価値が高い。

古書のうち刊本は290種、写本が540種で、刊本は木版本が170種、活字本が120種である。活字本のうち金属活字本は30種余りで、もっとも古いものは1434年鑄造の初鑄甲寅字による『大学衍義』である。その他、刊本には政治、経済、宗教、風俗、文学等、経史子集全分野にわたる多様な資料が収集されている。

写本には国役市廩類をはじめとする朝鮮後期の財制史および商業史に関する原資料が豊富である。特に綿紬廩(綿紬を売る御用商人の店)に関する原資料が200余点あり、その大部分は哲宗期(1850-1863)から1910年代初めまでのもので、朝鮮末期の財政史および都市商業経済史の研究上、貴重な資料である。なお河合文庫には偽造古文書も261点ほど含まれている。これら偽文書を誰がいつ作ったのかも、興味深い問題である。以下、古書については経史子集の分類別に述べる。

○ 經部22種

經部は全体として量が少なく、礼類10種、四書類5種、小学類7種、併せて22種である。中でも李德懋の『礼記臆』が文集とは別途に存在するのが注目される。

○ 史部561種

史部の資料は古書全体の約三分二を占める。しかも561種のうち約200種が他には所蔵の知られていない資料であり、量質ともに価値が高い。特に財政史に関する資料が豊富なのは、河合博士が朝鮮滞在中、この方面の研究にもっぱら従事され、関連資料を収集したためであると考えられる。中でも中央政府および各地方官衙で作成された公的な記録類は、朝鮮王朝時代の地方史、地方財政史の研究に大きく寄与するものである。綿紬廩関連資料約200点は、河合文庫所蔵古文書中もっとも注目すべき資料で、19世紀に漢城(ソウル)に居住した綿紬販売商人層が残したもので



■ 가와이문고 소장 자료의 특징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고서 약 832여 종, 고문서 약 3,200여 점, 탁본 30여 종, 서화 10여 종이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내 한국 고서 소장 기관 가운데 그 양이 매우 많은 편이며, 고문서의 경우 양적 질적 측면에서 자료 수준과 가치가 타 기관에 비해 훨씬 높다.

고서의 간행본은 290여 종, 필사본은 540여 종이다. 간행본 중 목판본은 170여 종, 활자본은 120여 종이다. 활자본 자료 중에서 금속활자본은 약 30여 종인데 가장 오래된 자료는 1434년 주조된 初鑄甲寅字로 印出된 『대학연의(大學衍義)』이다. 이외 에도 간행본에는 정치·경제·종교·풍속·문학 등 경사자집(經史子集)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어 있다.

필사본에는 국역시전류(國役市廩類)를 비롯하여 조선후기 재정사 및 상업사를 밝힐 수 있는 원 자료가 풍부하게 있다. 특히 면주전(綿紬廩) 관련 원 자료가 200여 종이나 되는데 대부분 哲宗 年間부터 1910년대 초반까지의 것으로 조선말기 재정사 및 도시상업경제사를 연구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이다. 한편 가와이 문고에는 위조고문서도 261점 정도 있다. 이 문서를 누가 언제 위조하였는가를 안다면 문서의 유통을 밝히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經部 총 22여 종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經部 자료가 총 22여 종 소장되어 있다. 四部 분류를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자료에 비해 양이 많다고 할 수 없다. 경부를 세분하여 보면 禮類 10종, 四書類 5종, 小學類 7종, 총 22여 종이다. 경부 자료 중에서는 李德懋의 『禮記臆』이 문집과 별도로 존재하여 주목할 만하다.

○ 史部 총 561여 종

가와이문고 소장 한국고문헌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사부 자료가 전체 자료의 총 67%를 차지하여 풍부하다는 점이다. 史部 자료는 총 561여 종인데 200여 종 이상이 유일본으로 질적 가치가 매우 높다.

사부 자료 중에서도 특히 조선의 재정에 관한 자료가 풍부하다. 가와이 히로타미 박사가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조선사 특히 재정에 관한 연구에 몰두하면서 관련 자료를 각 방면에서 수집하였기 때문이다. 재정사 자료 중에서도 특히 조선시대의 중앙정부 및 각 지방관아에서 편찬한 공공기록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다. 이 자료들은 조선시대의 지방사, 지방재정사를 연구하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綿紬廩 관련 자료는 총 200여 종 소장되어 있다. 가와이문고 소장 고문서 중 가장 주목할 자료로 19세기에 한성부에 거주하며 綿紬를 팔던 상인층이 남긴 문서이다. 이 면주전 자료에는 시민과 왕실, 호조,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면주전의 운영실태 등이 잘 드러난다. 19세기 조선의 상업사와 경제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ある。この資料からは、商人と王室および戸曹など政府機関との関係や、綿紬麩の運営実態を知ることができる。19世紀の朝鮮商業史、経済史研究上、重要な資料である。

○ 子部53種

子部類の中では、18世紀初、崔錫鼎(1646-1715)による訓民正音(ハングル)の研究書である『經世訓民正音』が重要である。著者直筆の写本と思われ、国内外通じて唯一の伝本である。この本は、従来、洪良浩の『耳溪集』に「經世正音図説序」があることで存在は知られていたが、実物は発見されず、その内容も不明であった。河合文庫所蔵本が知られるまでは、15世紀の『訓民正音解例』以後、申景濬(1712-1781)の『訓民正音韻解』(1750)が、最も古い訓民正音の研究書として知られていた。崔錫鼎の『經世訓民正音』は、それより40年以上早い時期に完成したもので、最初の訓民正音研究書として、その後の新たな研究の気運を開いた点に大きな意義がある。

○ 集部196種

集部には、総集類11種、別集類139種、小説類22種、隨筆類16種、尺牘類2種、詞曲類6種と多様な性格の資料がある。中でも『瀬尾編』は、従来書名は知られていたが、実物の存在は確認できなかったものである。河合文庫所蔵本は現存唯一の伝本で、李運永(1722-1794)の長男である李義淵の印章「韓山李氏義淵士靖」があり、李運永の手稿本あるいはそれに近い写本である可能性が高い。李運永は、1781年3月27日頃、忠清道黃澗の配流地でこの本を書き、近くの地名を取って書名としたと推定される。その他金元行の『漢湖先生集』の定本が策定される過程を示す校正本など貴重な原稿も所蔵されている。

○ 古文書3,200点

日本国内に所蔵される韓国の古文書としては、質量ともに他を凌駕するものである。また韓国国内に現在所蔵されている古文書は、その大部分が地方に世居する両班(貴族)階層が残したものだが、本文庫所蔵の文書は、17~19世紀の漢城府(ソウル)住民についてのものが大部分で、その身分も商人層、中人(通訳、技術系官僚で両班と庶民の中間層)から没落した両班、上層の門閥貴族まで多様な階層を網羅している点に特徴がある。これら3,200点の古文書については、すでに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において原文の翻字作業と原本イメージのデジタル撮影を完了し、ホームページ上で順次公開している。

○ 子部 총 53여 종

자부류에는 유가류 13여 종, 석가류 8여 종, 도가류 5여 종, 병가류 2여 종, 농가류 5여 종, 술수류 4여 종, 역학류 2여 종, 정음류 2여 종, 예술류 3여 종, 유서류 9여 종이 있다. 이 중 『農政會要』는 국내의 유일본으로 매우 중요하다.

또 18세기 초 崔錫鼎이 쓴 훈민정음 연구서인 『經世訓民正音』이 중요하다. 저자가 직접 쓴 필사본으로 보이며 국내의 유일본이다. 이 책은 그동안 洪良浩의 『耳溪集』에 「經世正音圖說序」라는 글이 있어 존재가 알려졌으나 실물을 보지 못하여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었는데,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 소장되어 있다. 이 책이 발견되기 전에는 15세기 『訓民正音解例』 이후 신경준의 『訓民正音韻解』(1750)가 가장 앞선 훈민정음 연구서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이 이보다 40~45년 정도 빠른 시기에 완성된 것이다. 『經世訓民正音』은 조선시대의 국어학사에서 오랜 침체기를 거쳐 최초로 나타난 훈민정음 연구서이고 18세기 이후 새로운 훈민정음 연구의 장을 열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지닌다. 최석정의 『經世訓民正音』은 조선후기의 훈민정음 연구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자료이다.

○ 集部 196여 종

집부에는 총집류 11여 종, 별집류 139여 종, 소설류 22여 종, 수필류 16여 종, 척독류 2여 종, 사곡류 6여 종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소장되어 있다. 그 중 『영미편』은 서명은 알려져 있었는데 실물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런데 가와이문고에 실물이 소장되어 있었다. 이 책에는 이운영(李運永, 1722~1794)의 장자 이희연(李義淵, 1755~1820)의 인장 “韓山李氏義淵士靖”이 찍혀 있어 이운영의 수필본이거나 이에 가까운 필사본일 가능성이 높은 국내의 유일본이다. 이운영은 1781년 3월 27일 경, 충청도 황간의 유배지에서 이 책을 저술하고 인근의 지명을 따라 서명을 정하였다. 또 金元行의 『漢湖先生集』의 定本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校正本 등 중요한 원고들이 소장되어 있다.

○ 高문서 3,200여 건

경도대학 가와이문고에는 한성부의 생활을 살필 수 있는 3,200여 건의 낱장본 고문서와 장부류, 회계책 등의 성책본 고문서가 다량 소장되어 있다. 이는 일본 내 고문서 소장 기관 가운데 그 양이 가장 많은 편이며 특히 자료 수준과 가치가 타 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고문서 자료는 대부분 지방에 세거하였던 양반가문에서 남긴 것이다. 그런데 가와이문고에 소장된 고문서는 17~19세기에 한성부에 살던 주민이 남긴 문서가 대부분이다. 신분 역시 양반가문에 국한되지 않고, 상인층, 중인층, 몰락양반, 최고급 문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고 있다. 해외한국학자료센터에서는 지난 4년간 낱장본 3,200여 건에 대한 탈초를 완료하였고 디지털원문이미지 촬영을 완료하였다.

1 1672年 安東金氏金壽增男妹分財記

此誌不記書名爲其後嗣並言
 一列給及事祀祭錄及別字祀祭出代各親侍
 受以罪當入於事祀祭者到令還出事或難使者別
 出其代事

一壽興壽恒則自以 先祖先考在世時遺受三村列
 視諸兄弟所得稍多不願與他同生一體爰分言出悔
 終始連拒亦非誠心相待之道略爲差減以成其志事

一同生等 先祖先考在世時有文記列給外親受使像
 收負收罪等無文記所付受物供爲許給於分給事

一庶母家計記難庶等妹皆生生理業心常例分給則
 少收罪所得等幾今依 先世已終之規被格分給庶母
 則 祖考時親得收罪及後所生並爲或錄事

一外家分財之物 先世在世時曾不收給收罪等不爲花
 名今至三十年不知其存沒存沒查得其時存數而
 匡處則收在各處終年沒歲難以整之而此以詳知者及文
 記中不付者分執事

一文記出年後連歲凶荒京外人物死之無數收罪中物
 故可以詳知者則及周後出代完數而改己正書之後則雖
 知其物有非續・追改事

一遺漏收罪田當隨後河見平均分給所得之數別收罪如
 給一口數少則以次分執此亦出於 先世前規事

一追正收罪分給久追雖不知其死生存亡而早晚不爲推得
 之理依例或錄於分給事

一水道收罪別 朝宗事目不許其主使像收負而 先世

1672 (顯宗13) 年、安東金氏の金壽增 (1626-1701) の嫡庶子13人が、兄弟姉妹の合議により両親の財産を分割相続した分財記で、和会分記と呼ばれる。全体は祖先祭祀のための奉祀条と、子女それぞれの「衿給」(相続分)を記した部分に分かれる。奉祀条には、奴婢205口、京畿道楊州所在の畝(水田)36斗落(面積単位)、畑14畝が記載され、嫡子女(3男5女)の相続分は、奴婢370口、畝380斗落、畑26.7日耕、41斗落で、各自奴婢45口、畝40-48斗落を基準に均分されている。本文書は、17世紀、朝鮮最高の両班(貴族)である安東金氏の中でも、清陰金尚憲(1570-1652)、金壽增、金壽興、金壽恒など多くの官僚、学者を輩出した一門の財産規模を示しており、史料的价值が高い。奉祀条に多くの財産が割り当てられているのは、礼学を重んずる家門として、宗法と祭礼を重視したためであろう。

発給・受取者 金壽增 (1626-1701) 嫡・庶子 13 男妹

請求記号 河合 ||1339

発行 顯宗 13 (1672)

登録番号 200048

形態 1 枚 ; 35 × 1,599cm

其間錯謬重複處頗多

以文各項條件列錄于左以俾

無爭端此則惟我同氣之間非所可論而能至後
不可豈予不先訓有之曰或有信財予謂小者忽言

大者爭以辱我門戶墜我家風者勿上丘墓嗚呼地

子孫其永念哉

一奉祀條 祖考在世時已為巨族成至文記故今以

遺書載錄于左奴非田當一依 治命膳錄而其平生等

並為遺書身故而無後者則及周不錄庶祖毋受祫田

奴非壽興

受分給外並使之傳與宗家均

亦為同錄事

一墓直則楊州山所居奴非仍定而後所

一祖地邊楊州衿川奴非十口七依 祖考遺命

祭事 一在尹祖考此神 祀至常享既穀遵 先公已行之規

歲一祭之每年十月就墓行事而奠物他無出處依神

文為出墓田傳之宗家亦世無勸事

一京江奴非膳物自 先公專為路餽六於四名日墓祭四

仲時祭及忌祭時收其且餽用之及至近日家味實甚不

得已月一日墓禮時六且指用且物奴非半珠以為難

堪後日子孫頂體 祖考之意觀宗家物力之如何臨時

酌酌減持以為完護奴非傳之久遠之地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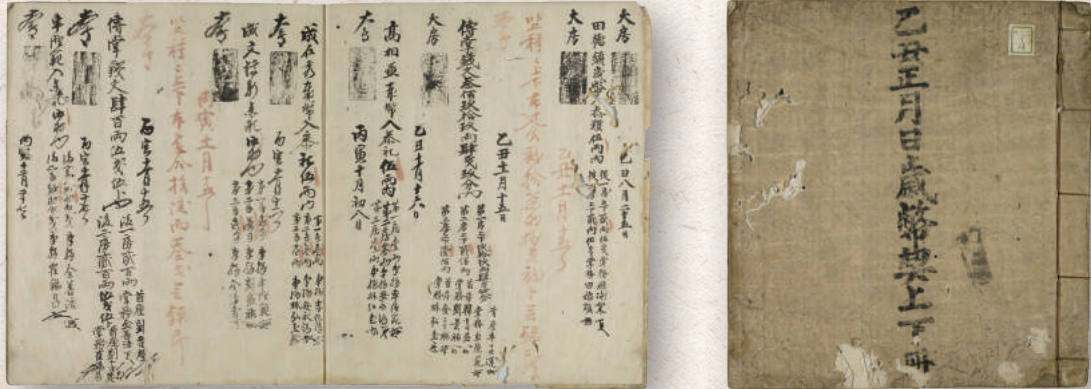
1672년(朝鮮, 顯宗13) 安東金氏 金壽增(1626-1701)의嫡庶 13남매가 부모의 재산을 나누어 가진 분재기이다. 형제자매간에 合議하여 재산을 나누어 갖는 분재기를 구체적으로 和會文記라고 칭한다. 이 분재는 크게 奉祀條 재산과 자녀 각자가 받을 몫으로 나누는 衿給 재산으로 구분된다.

봉사조에는 奴婢 205口, 京畿道 楊州에 소재한 畓 36斗落(마지기), 田 14畝가 책정되었다.嫡子女(3남 5녀)가 分執한 노비는 370口, 畓이 380斗落, 밭이 26.7日耕, 41斗落이다. 각 자녀들은 노비 45구, 논 40-48두락을 기준으로 정확히 均分하였다.

이 분재기는 17세기 조선의 最高 양반인 安東金氏가 소유한 재산의 규모와 그 樣相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史料的 가치가 크다. 淸陰 金尙憲(1570-1652)의 아들인 金壽增·金壽興·金壽恒 계열의 안동김씨는 수많은 官僚 및 學者群을 배출한 조선 최고의 閥閥家門으로 불린다. 이 분재기에서 多數의 奉祀條 재산이 책정된 것은 이들이 禮學 가문으로서 宗法과 祭禮를 중시하는 家風에 기인한 것이다.

(安承俊)

2 歳幣契上下冊 乙丑 (1865) 正月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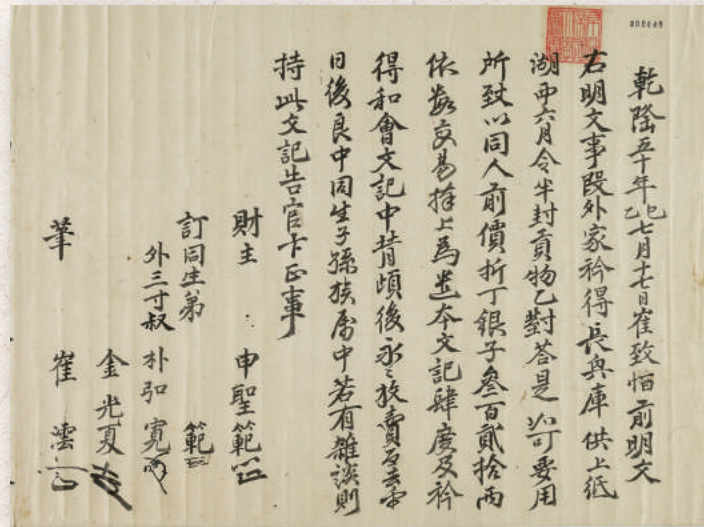


表題は「乙丑正月日歳幣契上下冊」。朝鮮王朝末期、漢城府(ソウル)の御用商人であった市塵の一つである綿紬塵の内部組織である歳幣契の会計帳簿。歳幣契とは清朝に対する歳幣(毎年の貢物)の綿紬の調達業務を行うため、商人たちが作った契(一種の頼母子講)である。この帳簿には1864年から1902年まで38年間の収入と支出の内訳が日ごとに記載されている。受価冊、会計冊、上用冊、上下冊、伝掌膳録からなり、受価冊は代金の受け取りと項目別の支出の帳簿、会計冊は綿紬調達のため実際に支出された代金と納品用の綿紬の量を記録した帳簿、上用冊は歳幣契組織の基金の支出帳簿、上下冊は基金の収入帳簿、伝掌膳録は基金の引き継ぎ帳簿である。これらによって、歳幣契が対外的に綿紬の上納業務を管理運営するだけでなく、内部の相互扶助をも行った組織であったことがわかる。歳幣契の性格とその推移を具体的に知ることができる貴重な資料である。

조선 후기 서울의 御用商塵인 市塵 가운데 하나였던 綿紬塵의 내부 조직인 歳幣契의 會計帳簿이다. 表題는 乙丑正月日歳幣契上下冊이다. 1864년부터 1902년까지 38년 동안의 入金 내역을 날짜별로 기록하였다. 세폐계는 淸나라에 대한 歳幣 등과 조직의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기록하였는데, 受價冊, 會計冊, 上用冊, 上下冊, 傳掌膳録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受價冊은 代金の 受取와 그 項目別 支出을 기록한 장부, 會計冊은 綿紬 조달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대금과 納品用 면주의 조달을 기록한 장부, 上用冊은 基金의 지출 장부, 上下冊은 기금의 收入 장부, 傳掌膳録은 기금의 引繼引受 장부이다. 이 帳簿를 통해 세폐계가 대외적인 綿紬의 上納이나 進排, 조직 내의 相互扶助에까지 관계한 조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장부는 면주전의 내부 조직인 세폐계의 기금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며, 37년 이상의 장기에 걸쳐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어 전체적인 지출의 내용 구성뿐 아니라 추이에 대한 정보까지 충실히 제공해준다.

(安承俊)

版種	筆写本
発行	高宗 1 (1864) 写
形態	不分卷 1冊: 無郭, 無界, 11-14 行字数不定; 33.8 × 31.4cm
注記事項	印: 綿紬塵 紙質: 楮紙
請求記号	河合 イ-16
登録番号	199869



1785(正祖9*)年7月17日、崔致恒が財主の申聖範から長興庫に供上紙を納品する資格である貢人權を購入して作成した売買明文である。納品する供物は、湖西(忠清道)地域の供上紙6月分の半分で、購入価格は銀子320両である。朝鮮の官府は、必要な各種の物品を、独占的に供給する商人である貢人に納付させる特権を与えていた。朝鮮後期には大同法が施行され、中央官府は宣惠庁から費用を支給され物品を調達した。貢人は指定した品目を独占的に供給する権限を各機関から与えられた商人で、その権利(貢人權)は売買が可能であった。申聖範は売渡時に、①1697年安世徽、②1750年4月韓興瑞、③1750年11月崔寿天、④1771年朴大禧など、それ以前の貢人權売買文書4枚を共に崔致恒に渡している。

*正祖9年=乾隆50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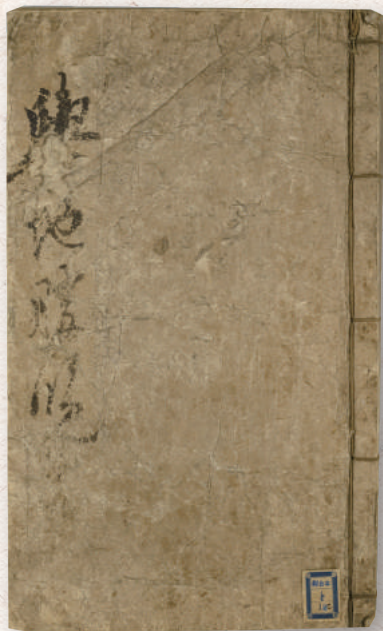
1785년(正祖 9) 7월 17일, 崔致恒이 財主인 申聖範으로부터 長興庫의 供上紙를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인 貢人權을 구입하면서 작성한 賣買明文이다. 이같은 문서를 貢人文記라 한다. 납품하는 供物은 湖西 지역의 供上紙 6월분의 1/2이고, 매매가격은 銀子 320兩이다. 조선의 官府에서는 所要되는 각종 物品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상인인 貢人에게 필요한 物目を 지정하여 납부하도록 특권을 부여하였는데, 貢人文記는 이 貢人權을 매매하는 문서이다.

조선후기에는 大同法을 시행한 이후에 중앙 관부에서는 宣惠廳으로부터 貢物價를 지급받아 물품을 조달하였다. 貢人은 각 기관에서 공물가를 받고 지정한 물목을 공급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상인이다. 납품은 지정된 범위 안에서 독점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권한은 매매가 가능했다.

申聖範은 賣渡할 때 이전에 거래된 공인문기 4장을 함께 넘겼다. 이 4장은 ①1697년 安世徽, ②1750년 4월 韓興瑞, ③1750년 11월 崔壽天, ④1771년 朴大禧가 공인권을 사면서 받은 매매명문이다. (安承俊)

著者	申聖範, 崔致恒
発行	乾隆 50 (1785)
形態	1 枚; 33.6 × 45.1cm
請求記号	河合 357
登録番号	200048

4 東国輿地勝覽



朝鮮成宗代に、盧思慎、姜希孟、梁誠之等が、王命によって編纂した地理書。朝鮮各道の地理風俗、物産等を記録する。全国を漢城府、開城府の兩都と、京畿道、忠清道、慶尙道、全羅道、黃海道、江原道、咸鏡道、平安道に区分する。京都の前に「八道總圖」を入れ、道別の地図も収録し、各道の沿革、官員、風俗、形勝、物産、人物等を項目別に叙述する。

本書は1481年に50巻で完成したが刊行されず、その後修正作業が行われ、1487年と1499年に55巻で刊行された。さらに中宗時の1530年に、『新增東國輿地勝覽』として大幅に増補された。『新增東國輿地勝覽』以前に刊行されたものは、きわめて珍しく、この癸丑字本『東國輿地勝覽』は、完帙ではないが、書誌学的には価値が高い。燕山君、中宗時期の文臣、權鈞(1464-1526)に下賜された内賜記がある。

朝鮮 成宗代에 盧思慎, 姜希孟, 梁誠之 等이 王命을 받아 編纂한 地理書이다. 朝鮮 各道の 地理, 風俗, 物産 等を 記錄하였다. 全國을 兩京 八道로 나누어 漢城府, 開城府, 京畿道, 忠清道, 慶尙道, 全羅道, 黃海道, 江原道, 咸鏡道, 平安道로 區分하였다. 그리고 京都의 앞에 ‘八道總圖’를 넣었고, 各道の 앞에도 道別 地圖를 収録했다. 各道에는 沿革, 官員, 風俗, 形勝, 物産, 人物等이 項目別로 敘述되어 있다.

『東國輿地勝覽』은 1481년에 50卷으로 처음 完成되었지만, 刊行되지는 않았다. 이후 持續的인 修正 作業이 이루어져서 1487년과 1499년에 각각 55卷으로 刊行되었다. 中宗 때인 1530년에는 大的인 增補 作業을 하여 『新增東國輿地勝覽』을 編纂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이전에 刊行된 책이 매우 稀貴하다는 점에서 河合文庫에 소장된 癸丑字本 『東國輿地勝覽』은 비록 完帙은 아니지만 書誌學的 價値가 매우 높다. 또한 이 책은 朝鮮 前期 燕山君과 中宗 때의 文臣이었던 權鈞(1464-1526)에게 下賜하였다는 內賜記가 있어 더욱더 重要한 價値를 지닌다.

(鄭雨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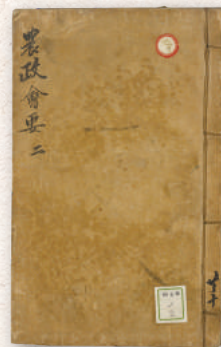


著者	盧思慎(1427-1498)等奉教撰 金宗直(1431-1492)等修 成倪(1439-1504)等再修	注記事項	表題：輿地勝覽 版心題：東覽 序：成化紀元之十七年蒼龍辛丑(1481)四月下澣崇政大夫達城君……徐居正(1420-88)拜手稽首謹序 序：成化十七年(1481)四月十九日崇祿大夫……宣城府院君……盧思慎(1427-1498)等謹上箋 內賜記：弘治十五年(1502)二月日內賜成均館司成權鈞輿地勝覽一件命除謝恩右承旨臣申[手決] 印：「宣賜之記」,「○○堂」,「就甫」 紙質：楮紙 備考：全55卷中卷1-10, 14-23, 27-30, 36-37, 51-52, 28卷10冊存
版種	金属活字本(癸丑字)		
発行	漢城：校書館, 燕山君 8(1502)		
形態	28卷10冊(零本)：四周双辺 半郭 28.0 × 17.3 cm, 有界, 8行16字 註双行, 下内 向黒魚尾, 大黒口; 36.2 × 21.7 cm		
請求記号	河合 ト -18c		
登録番号	193644		

5 農政會要



『農政會要』は、19世紀朝鮮の実学者、崔漢綺(1803-1877)が編纂した朝鮮後期を代表する農書の一つで、河合文庫所蔵本以外の伝本は知られていない。全10冊中第1冊を欠く。編纂時期は1834-1842年と推定される。全体は、土宜・水利・穀種・功作・淤陰・攻治・蓄聚・農餘・治膳からなり、各篇の前に序説を附す。本文には註をつけ、さらに疏、箋を附して読者の理解に資す。本書は主に中国清代の農書である『授時通考』を参照し、その他、中国、朝鮮の農書を幅広く活用し、さらに西洋科学の知識をも紹介する。編者の崔漢綺は、西洋の科学技術導入に熱心で、東洋と西洋の学問的業績を集大成した実学者で、他に『気学』、『人政』等の著述が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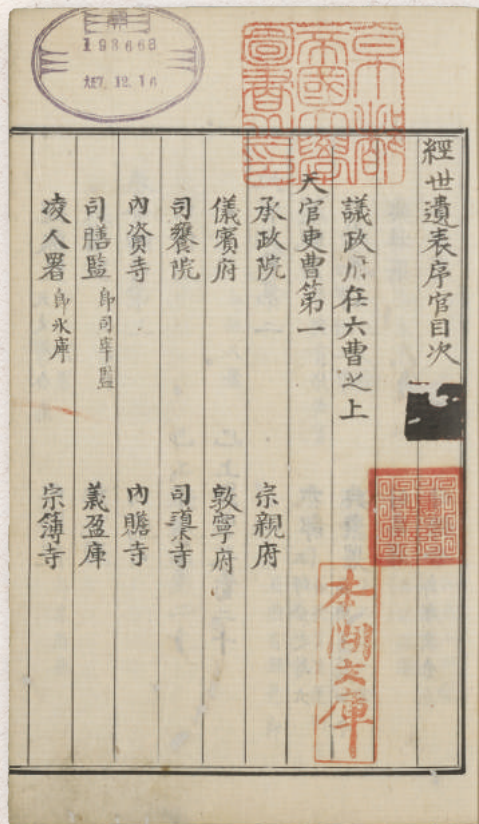
『農政會要』는 19世紀 朝鮮의 實學者였던 崔漢綺(1803-1877)에 의해 編纂된 農書이다. 이 책은 朝鮮後期에 저술된 代表的인 農書의 하나이며, 河合文庫所蔵本이 唯一本이다. 10冊 중에서 제1冊이 缺本이다. 編纂 시기는 분명하지 않지만, 1834년~1842년 사이로 推定된다.

全體 構成을 살펴보면, 土宜・水利・穀種・功作・淤陰・攻治・蓄聚・農餘・治膳으로 나뉘어져 있다. 每篇의 앞에는 序說이 收錄되어 있다. 本文이 나오고, 註를 달아 풀이하였고, 다시 疏 또는 箋을 덧붙여 讀者로 하여금 쉽게 理解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이 책은 中國 淸나라 때에 編纂된 農書였던 『授時通考』를 주로 參照하면서, 中國 農書와 朝鮮時代 農書を 폭넓게 活用하였다. 다른 책에서 引用할 때에는 引用書目을 밝혔으며, 西洋科學의 知識들을 紹介하였다.

이 책을 編纂한 崔漢綺는 西洋의 科學技術 導入에 積極的이었으며 東西洋의 學問的 業績을 集大成 하였던 實學者로서, 『氣學』과 『人政』 등의 많은 著述을 남겼다. (鄭雨峰)

著者	崔漢綺(1803-1877) 撰
版種	筆写本
発行	[発行地不明]:[発行所不明], [朝鮮後期]
形態	零本9冊(全10冊中冊1欠): 挿圖,半郭18.3×12.0cm,有界, 10行21字註双行,上下向黒魚尾; 25.4×15.8cm
注記事項	表題:農政會要 版心題:農要 印:「太誠學印」 紙質:楮紙 裝訂:四針眼訂法 備考:芸田艸舎(版心下段印刷)
請求記号	河合 ノ-2
登録番号	199332



朝鮮後期の実学者、丁若鏞(1762-1836)が、1817年全羅道の康津で配流生活を送っていた時期に執筆したもので、官制、土地、租税制度などの改革の原理を提示したものである。丁若鏞はその著述の動機を、「百官は備わず、正士に禄なく、貪風大いに作り、生民憔悴す。竊(ひそ)かに嘗つてこれを思うに、蓋し一毛一髪も病に非ざる無し。今に及びて改めざれば、其れ必ず国亡んで後已まん。斯(こ)れ豈(あに)忠臣志士の能く袖手して傍觀する所の者ならんや(百官不備、正士無禄、貪風大作、生民憔悴。竊嘗思之、蓋一毛一髪、無非病耳、及今不改、其必亡國而後已。斯豈忠臣志士所能袖手而傍觀者哉)」と述べている。河合文庫には三種の『經世遺表』写本が所蔵されているが、中でもこの11冊本は、丁若鏞の家で早い時期に筆写された可能性が高く、他には所蔵が知られない貴重な資料である。

조선후기의 실학자(實學者) 정약용(丁若鏞, 1762-1836)이 1817년 전라도(全羅道) 강진(康津)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행정기구의 개편을 비롯하여 관제·토지제도·부세제도 등 모든 제도의 개혁 원리를 제시한 책이다.

정약용은 『경세유표』의 저술동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직이 정비되지 않아 정사(正士)에게 녹(祿)이 없고, 탐묵(貪墨)한 풍습이 크게 일어나서 백성이 시달림을 받았다. 그욕이 생각건대 터럭 하나 라도 병통이 아닌 것이 없는 바,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한 다음이라야 그칠 것이다. 그러하니 어찌 충신과 지사가 팔짱만 끼고 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百官不備, 正士無祿, 貪風大作, 生民憔悴. 竊嘗思之, 蓋一毛一髮, 無非病耳, 及今不改, 其必亡國而後已. 斯豈忠臣志士所能袖手而傍觀者哉?)

가와이문고에는 3종의 『경세유표』 필사본이 있다. 그 중 11책짜리는 정약용 집안에서 이룬 시기에 필사한 자료일 가능성이 높다. 첫째, 정약용의 저술인 『여유당집(與猶堂集)』을 집안에서 필사한 자료와 서지적 특징이 기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둘째, 두주(頭註)의 존재 등이 그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가와이문고의 11책 필사본 『경세유표』는 다른 곳에는 존재하지 않는 유일본이다.

(朴英敏)

著者 丁若鏞(1762-1836)

版種 筆写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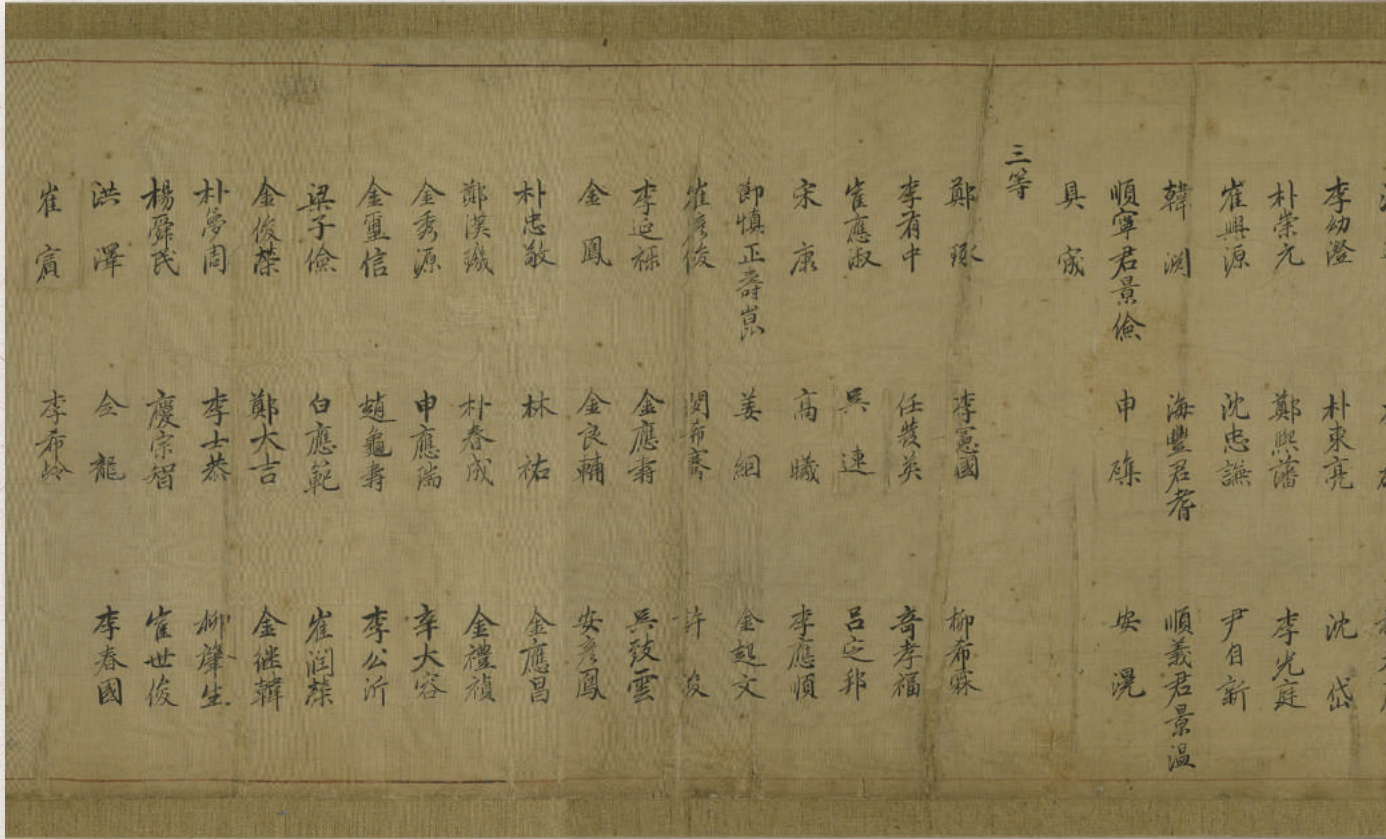
形態 11冊, 半郭 四柱双辺 19.2cm × 13.5cm, 有界 10行 22字; 24.3cm × 15.7cm
烏糸欄, 朝鮮紙

注記事項 備考: 丁若鏞家門筆写本

請求記号 河合 || ケ -15

登録番号 193668

7 1604年吳連扈聖功臣教書



扈聖功臣教書は、壬辰倭乱（文禄慶長の役）の時、国王の宣祖に義州まで扈從した86名の功臣に対し、1604年に与えられたものである。現在知られる功臣教書は9件（文臣8件、医官1件）で、うち6件が宝物、有形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る。吳連は宮中の馬を管理する司僕寺の雜職である理馬で、この職にあった者がもらった功臣教書は、これ以外に知られていない。内容は、「爾は下隸を以て、尚お君に後れず、撫軍の行に扈するに速び、尤も負轡の績を著す、千里を跋涉し、備さに險艱を嘗め、終始一心、僕御を周旋す」（爾以下隸，尚不後君，速扈撫軍之行，尤著負轡之績，跋涉千里，備嘗險艱，終始一心，周旋僕御。）と、吳連が低い身分にもかかわらず、忠誠を尽くしたことを讃えたもので、吳連はこれによって三等功臣、石城君に封じられ、樂安吳氏石城君派の始祖となった。なおこの教書は申之悌『梧峯先生文集』卷七に「教吳連書」と題して見える。

版種	卷子本
発行	1604
形態	一軸；41 × 469cm
請求記号	河合 R76
登録番号	200048

教

忠勤貞亮扈聖功臣振威將軍行忠佐衛副司
果吳連書

王若曰尊君親上之心無間於貴賤報勞酬功之典
寧別於重輕茲稽彛章用示異數嚮者東夷
桀鷲竊我家邦西馮蒼黃越在草莽大小州
縣皆瓦解而土爾中外臣民多默奔而為寇
爾以下隸尚不後君逮扈軍之行尤著負職
之績跋涉千里備嘗險艱然始一心周旋傑御
蓋乃良能之得於天賦所以貞亮之著於時危
在士夫猶鮮能況早納之尚爾奉天定難之騷
雖不擬施蒲城後亡之勞寧無可紀雖策勳
為扈聖功臣三等圖形垂後起一階爵其父母
妻子亦起一階無子則甥姪女婿加階嫡長世襲
不失其祿宥及永世仍賜伴倘四人奴婢七口丘史二名
田六十結銀子五兩表裏一段內廐馬一匹至可頌
也於歲垂名鍾鼎錫冊恩榮守誓山河保予寵
命故茲教示想宜知悉

一等

李恒福

鄭崇壽

二等

信城君爾

定遠君厚

李元翼

尹斗壽

沈友謙

李好閔

尹根壽

柳成龍

金應南

李山甫

柳根

李志元

共進

李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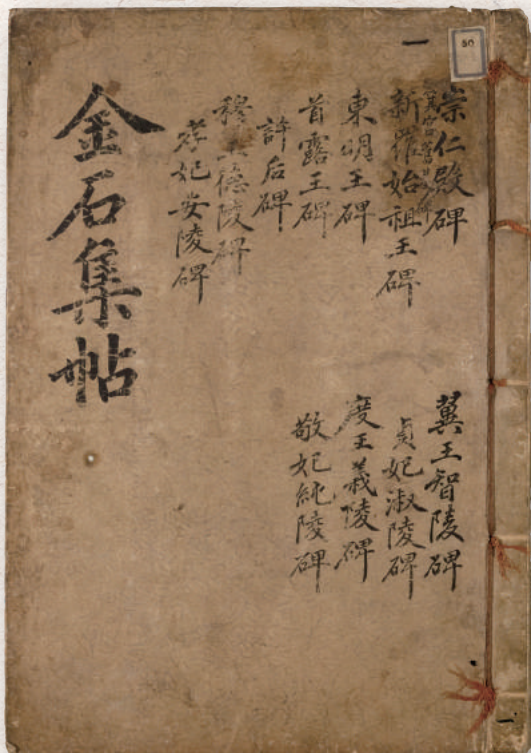
柳永慶

호성공신(扈聖功臣)은 선조(宣祖)가 임진왜란 때 자신을 의주(義州)까지 호종하는 공(功)을 세운 86명에게 1604년 내린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공신교서는 모두 9개인데, 그 중 6개가 보물이나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기존에 알려진 교서는 문신(文臣) 8개, 의관(醫官) 1개인데 사복시(司僕寺)에서 궁중의 말을 관리하던 잡직(雜職)인 ‘이마(理馬)’가 받은 공신교서로는 가와이문고의 「오연호성공신교서」가 유일하다. 「오연호성공신교서」는 신지제(申之悌)가 작성하였다.

호성공신교서에서는 오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을 존경하고 윗사람을 친근히 대하는 마음은 귀천에 차이가 없으니, 노고에 보답하고 공로에 답하는 은전에 어찌 경중을 구별하겠는가? 이에 법도에 따라 특별한 예우를 보이노라.....너는 하례(下隸)로서 임금을 뒤로하지 않고 어가와 세자의 출정에 말고삐를 짊어지는 공을 이루었고 험난한 일을 두루 겪으면서도 시종일관 온 마음으로 마부의 역할을 다 하였다.” 교서에는 오연이 낮은 신분임에도 충성을 다했음을 강조했다. 이후 오연은 석성군(石城君)에 봉해져 낙안(樂安) 오씨(吳氏) 석성군파의 시조가 되었다.

(朴英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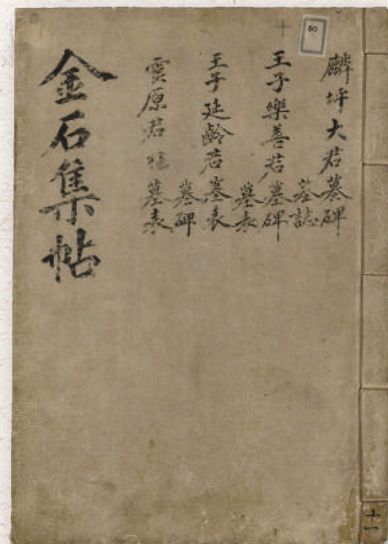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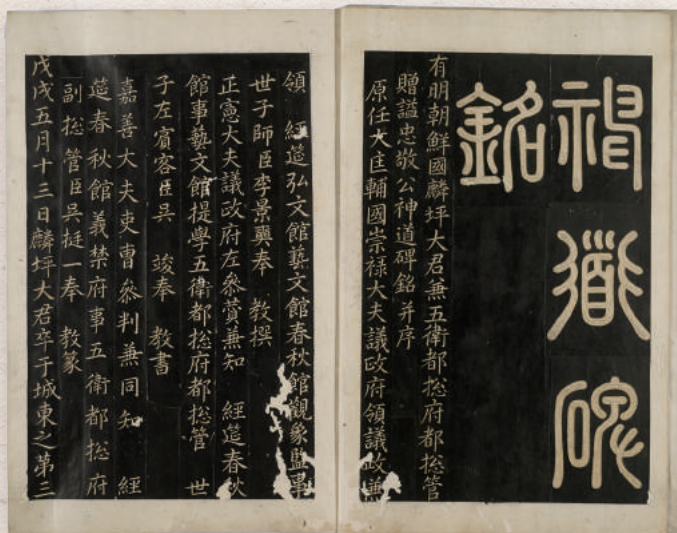
8 金石集帖



金在魯(1682-1759)編『金石録』の一部で、近世以前の韓国金石文拓本の現存最大かつ最良のコレクション。冊子の背に記載の「欽欽軒」は、編者金在魯の書齋号と推定される。全体は項目別に分類され、その中の巻次は千字文順に配列する。

拓本は墓碑類と一般石碑類に大別される。墓碑類には陵碑、陵表、園表、追祔表、神道碑、墓碑、墓表、墓碣等が、一般石碑類には宮殿碑、舊里碑、紀蹟碑、記事碑、事蹟碑、事實碑、遺墟碑、下馬碑、駐蹕碑、御筆別諭碑、御製碑、御製懸板、繪音懸板、御製祭文、砥柱碑、忠烈碑、書院碑、祠碑、旌閭碑、殉節碑、殉義碑、門碑等がある。うち墓碑類が大きな比重を占め、碑主(墓主)は16世紀末以後18世紀初の士大夫がもっとも多い。

『金石集帖』はもと本編206冊、続編20冊の226冊から成り、本編は金在魯、続編は金在魯の死後、後人が収集したと推定される。これについて葛城末治と前間恭作は、現在ソウル大学校奎章閣所蔵の39冊の金石帖に言及しているが、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本には言及していない。同一形態の金石帖は、ソウル大学校所蔵本以外にも高麗大学校六堂文庫に28冊、個人所蔵が5冊で計72冊が報告されている。また金在魯編の目録としては高麗大学校六堂文庫所蔵の『金石録』(写本)がある。『金石録』の総目は「天朝」から「釋寺」まで34の項目から成り、2,405点が収録されるが、重複があり、実際には2,265点の拓本が著録されている。京大本『金石集帖』を韓国所蔵の集帖および『金石録』目録と対照すれば、『金石集帖』の全貌が明らかになるものと期待され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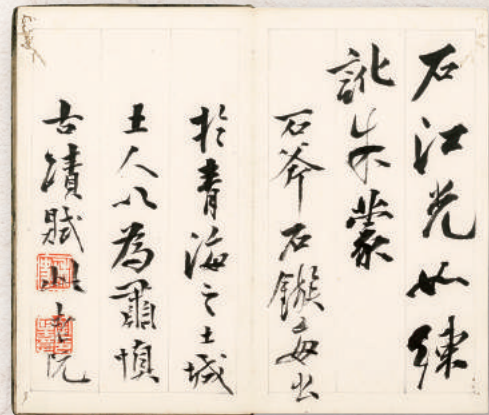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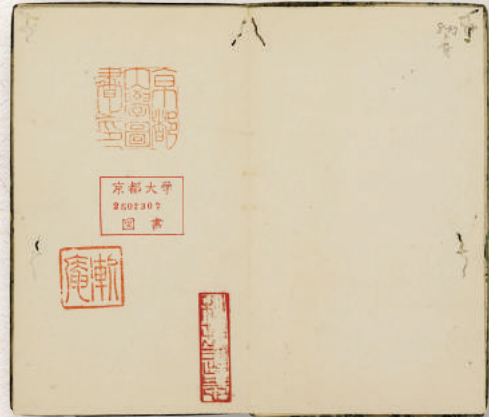


金在魯(1682-1759) 編 『金石錄』의 일부. 韓國近世以前 金石文搨本の 현전 최대 집성본이자 최선본이다. 冊背에 ‘欽欽軒’이 적혀 있는데, 編者 金在魯의 書齋 이름으로 추정된다. 전체는 項目別로 분류되어 있고, 하위의 卷次는 千字文順으로 배열하였다. 題籤에 ‘金石文’의 搨本集임을 밝혔으나, 金文의 搨本은 들어 있지 않다. 搨本의 대상은 크게 墓碑類와 一般石碑類의 2종으로 나뉜다. 墓碑類로는 陵碑, 陵表, 園表, 追祔表, 神道碑, 墓碑, 墓表, 墓碣 등이 있다. 一般石碑類로는 宮殿碑, 舊里碑, 紀蹟碑. 記事碑, 事蹟碑, 事實碑, 遺墟碑, 下馬碑, 駐蹕碑, 御筆別諭碑, 御製碑, 御製懸板, 綸音懸板, 御製祭文, 砥柱碑, 忠烈碑, 書院碑, 祠碑, 旌閭碑, 殉節碑, 殉義碑, 門碑 등이 있다. 墓碑類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一般石碑類는 각 종류별로 소량이다. 墓碑類의 碑主(墓主)는 16世紀末 이후 18世紀初 李朝士大夫가 가장 많다.

본래 『金石集帖』은 原編 206冊, 續編 20冊, 總 226冊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原編은 金在魯가 收集한 것이고, 續編은 金在魯 死後 後人이 收集했으리라 추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葛城末治(1935)와 前間恭作(1944)는 현 서울대 奎章閣藏 39冊의 金石帖에 관해 언급한 바 있으나, 京都大學付屬圖書館藏 金石帖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동일 형태의 金石帖으로는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奎章閣藏 39冊 이외에, 高麗大學校 六堂文庫藏 28冊, 그리고 個人所藏 5冊 등 총 72冊이 報告되어 있다. 또한 金在魯編 金石帖의 목록으로, 현재 高麗大學校 圖書館 六堂文庫에 『金石錄』 寫本이 있다. 『金石錄』의 總目을 살펴보면, ‘天朝’부터 ‘釋寺’까지 3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卷次는 千字文順이다. 2,405點의 金石目錄(懸板 목록 포함)이 있으나, 각 권에 중복이 있어 실제로는 2,265點의 拓本이 저록되어 있다. 동 『金石集帖』과 韓國傳存 集帖 및 『金石錄』 目錄과 대조하면 『金石集帖』의 全貌를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沈慶昊)

著者	金在魯 (1682-1759) 編	請求記号	一般貴重書 8-50 キ 貴別
形態	219冊; 40.3×28.2cm	登録番号	90090, 93224

9 咎舌帖



朝鮮後期の文人学者、書家、画家として知られる金正喜 (1786-1856) が、晩年配流から果川 (京畿道) の下湍田舎に帰った後、中国から輸入した書帖に自作の漢詩「石咎詩」と「詠百舌鳥」を書いたもので、『咎舌帖』という題は両詩の題から一字ずつ取ったものである。金正喜は清朝への使節となった父、金魯敬 (1766-1837) について北京に行き、当時の著名な学者である阮元や翁方綱と面会し、帰国後も書簡を通じて交流し、清朝の学術を朝鮮に紹介した。金正喜晩年の円熟した行書の筆跡を見ることができる。

著者 金正喜 (1786-1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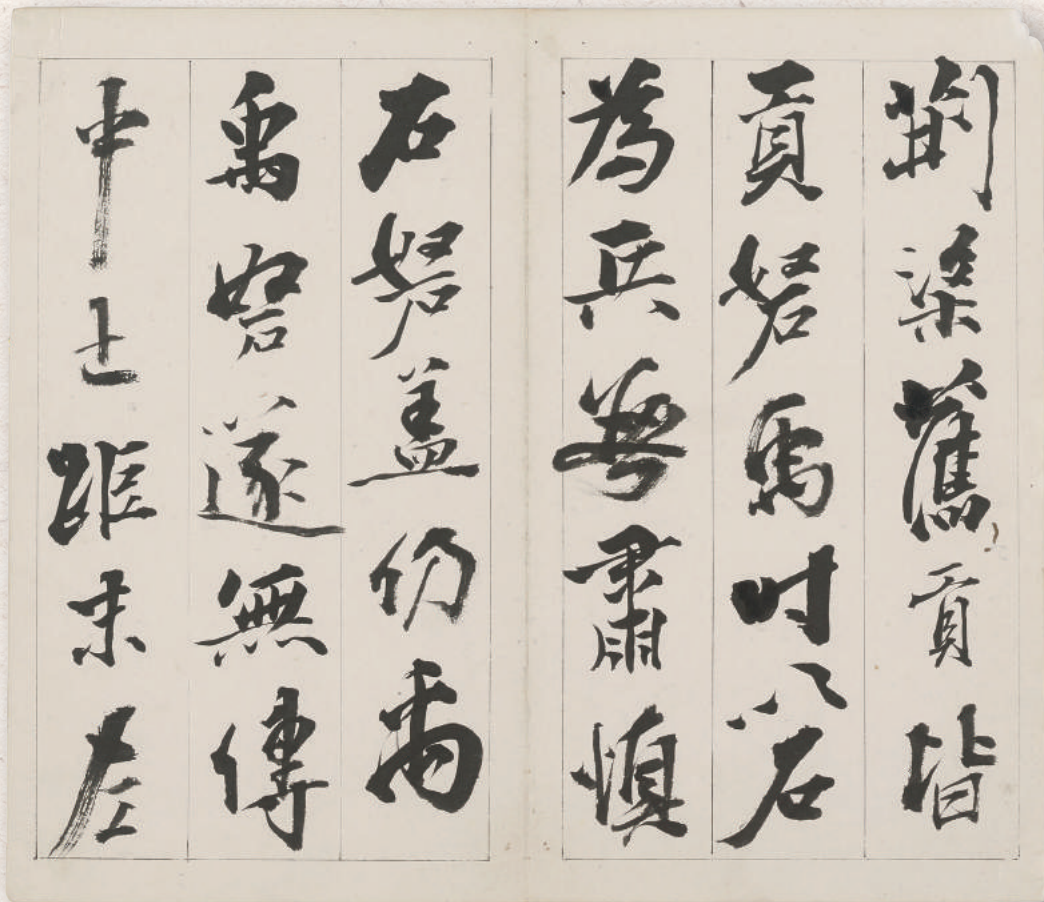
版種 親筆

形態 折帖本, 1冊; 22.1 × 12.8cm, 長さ 154cm

注記事項 表紙 題簽: 咎舌帖 乙卯仲秋 研仙蔵 (韋堂)
蔵書印: 「漢舒」、「韋堂」、「秋史」、「金正喜印」

請求記号 谷村 ||8-43|| 卜貴

登録番号 2502307



김정희(金正喜, 1786-1856)가 만년에 유배에서 돌아와 과천(果川) 하손정사(下瀦田舍)에서 생활할 때 중국에서 輸入한 서첩에 親筆로 자신의 漢詩 「석노시(石磬詩)」와 「영백설조(詠百舌鳥)」를 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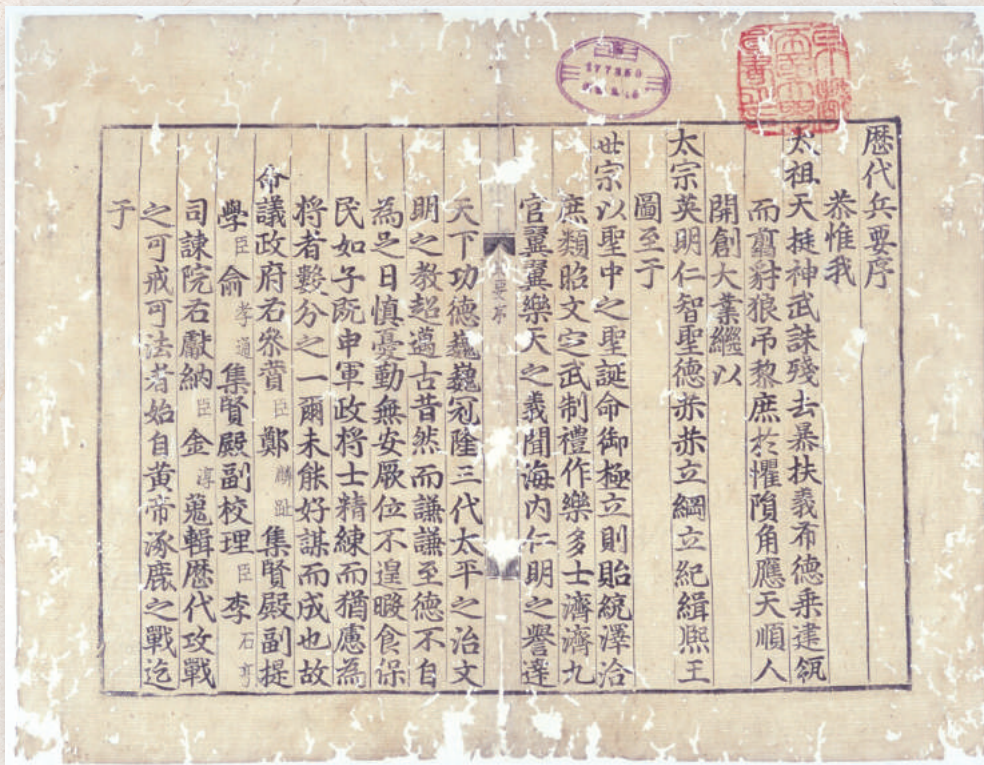
김정희는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書藝家이자 文人畫家이며, 經學家이자 考證學者이며, 金石學研究者이다. 그는 사행(使行)하는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을 따라 淸나라 연경(燕京)에 유학하여 완원(阮元, 1764-1849), 옹방강(翁方綱, 1733-1818)에게 배웠고 귀국 후에도 편지를 통해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淸대 학술 연구에 몰두하여 조선후기 북학(北學)의 종장이 되었다.

『노설첩(磬舌帖)』의 표지는 紋樣이 들어간 緋緞으로 되어 있다. 서첩의 제목은 「석노시(石磬詩)」와 「영백설조(詠百舌鳥)」에서 한 글자씩 따온 것이다. 「석노시」와 「영백설조」는 김정희가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도에서 지은 한시이다. 서체는 김정희의 만년의 원숙한 행서(行書)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노설첩』은 김정희의 글씨를 가져다 粧帖을 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서첩에 함께 필사한 것으로 김정희 작품의 원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朴英敏)

10 歴代兵要



もと13巻13冊。庚午字は世宗の三男である安平大君の書いた字を字本とした銅活字で、庚午字で印刷された書籍は現在4種しか知られていない。また『歴代兵要』は、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本が現存唯一の伝本である。1450（世宗32）年、第四代国王世宗が、鄭麟趾等に中国歴代の戦争と、それに対する先人の評を集めさせ、「歴代兵要」と命名した。その後、1451（文宗元年）年、文宗が金龜、金末、金淡、徐居正等に記録を原典と対照させ、音注を補完させた。首陽大君がこの作業を総裁し、1453（端宗元年）年に完成本を献上し、この年に庚午字で刊行された。その後、1456（世祖2）年に全羅道觀察使李石亨が都事趙枚、光州牧使宋休明に木版で刊行させた本がソウル大奎章閣に所蔵される（巻1-2欠）。巻13には、高麗と契丹の戦争、元の成立と宋の滅亡、元の日本遠征、さらに李成桂（朝鮮太祖）の紅巾賊、倭寇討伐などが述べられている。



著者	（朝鮮）鄭麟趾（1396-1478）、 俞孝通（生没年未詳）、 李石亨（1415-1477）等奉命編集、 首陽大君 李瑒 摠裁、	発行	端宗元（1453）
版種	銅活字庚午字印出	形態	12冊；33.8×22cm
		請求記号	一般貴重書 8-21 レ 1 貴
		登録番号	177350

본래 총 13권 13冊이다. 庚午字는 世宗의 3男 安平大君의 글씨를 字本으로 사용한 동활자로, 경오자에 의한 인출 서적은 전부 4종밖에 없다. 또한 경오자 『역대병요』의 傳存本은 京都大學付屬圖書館本이 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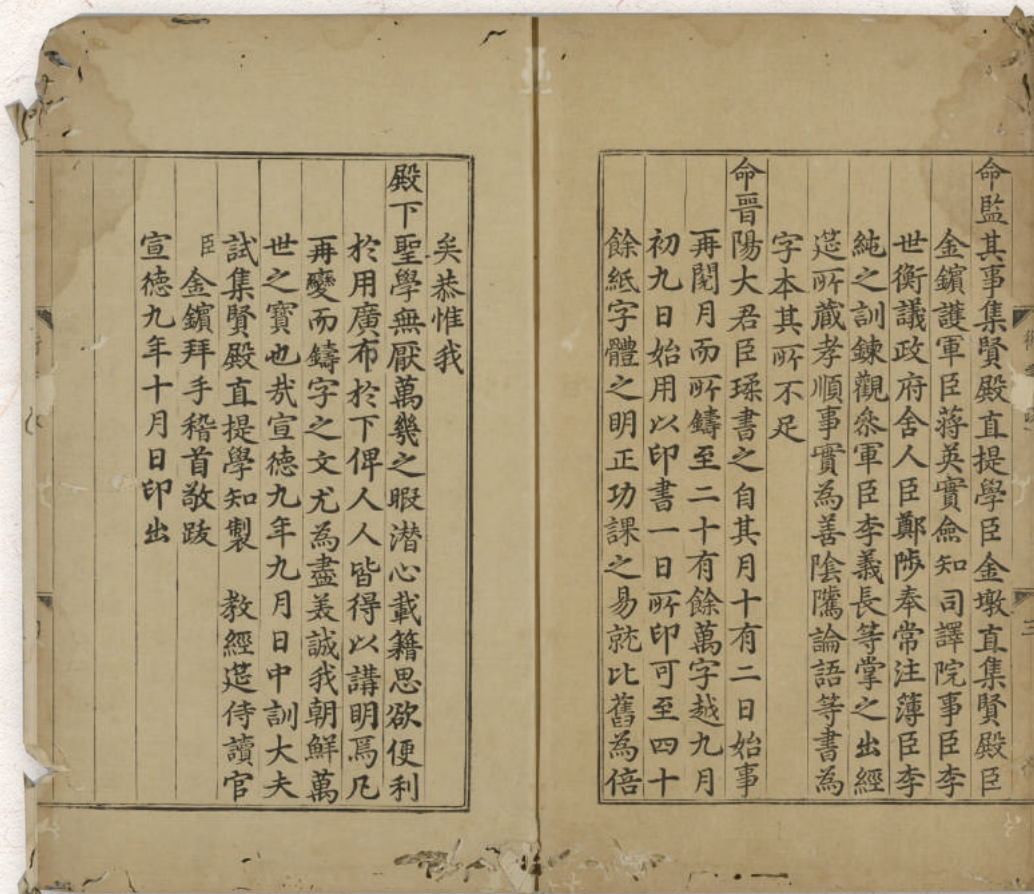
1450년(世宗 32) 世宗이 鄭麟趾 등에게 歷代의 戰爭과 그것에 대한 先儒들의 評을 집성하도록 하고, 친히 ‘歷代兵要’라고 書名을 붙였다. 그 뒤 1451년(文宗 元年) 文宗이 金龜·金木·金淡·徐居正 외 6인에게 기록을 원전과 대조하게 하고 音注를 보완하도록 하였다. 首陽大君이 이 작업을 摠裁하여 1453년(端宗 元年) 端宗에게 완성본을 헌정하여, 이해 景오자로 刊印되었다. 이후 1456년(世祖 2) 全羅道觀察使 李石亨이 都事 趙枚, 光州牧使 宋休明의 主宰로 整版하여, 한국 서울대학교 奎章閣에 木版本(缺卷 1-2)이 전한다.

권13에는 元의 成立과 宋의 滅亡 과정에 벌어진 전투, 元의 일본 정벌 試圖에 이르기까지의 중국의 전사를 정리하고, 이어 高麗가 契丹의 침략을 물리친 내용, 高麗末 李成桂의 紅巾賊을 討伐한 내용을 수록하였다. 그리고 明이 元을 정벌한 기사를 수록하고, 다시 李成桂가 倭寇·元·女眞族을 물리친 기사 11편을 수록하였다.

(沈慶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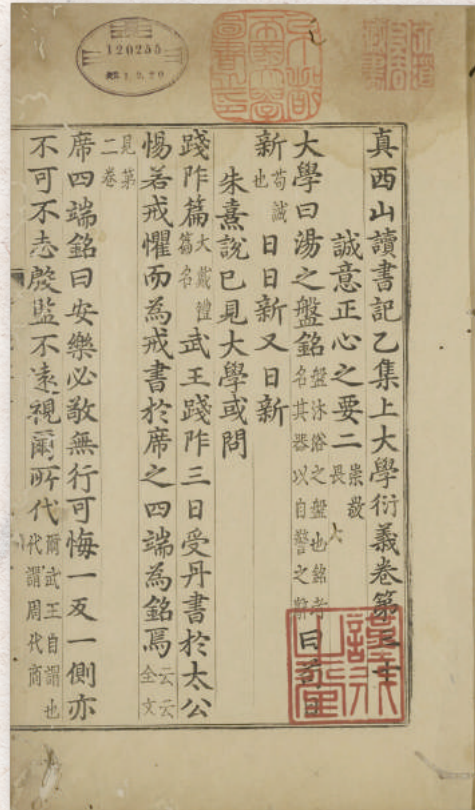


11 大学衍義



本書は朝鮮第4代王である世宗の第七男平原大君李琳(1427-1445)の所蔵本で、巻30巻頭等に平原大君の蔵書印である「勤行之堂」印がある。『大学衍義』は高麗末期から国王の経筵でしばしば進講され、朝鮮時代には多くの版本が刊行され、さらに類編や節略本も作られた。太宗9(1409)年に金科に『大学衍義類編』を編纂させ、成宗3(1472)年4月には、李石亨等が『大學衍義』を刪節し、『高麗史』の事績を加えた『大学衍義輯略』21巻が典校署から木版で刊行された。京都大学附属図書館所蔵本は初鑄甲寅字本で、朝鮮で刊行されたもっとも早い時期の『大学衍義』である。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にも残巻1冊があり、やはり「勤行之堂」印が捺印されている。

著者	(宋) 陳德秀撰。
版種	金属活字本(初鑄甲寅字)
発行	朝鮮初期
形態	10冊; 35.6 × 21.8cm
注記事項	別書名: 眞西山讀書記乙集 上大學衍義 印出記: 宣德九(1434)年 十月日印出(巻43末甲寅字 鑄字跋) 印: 勤行之堂(陽刻 方形朱印, 巻30第一張等)
請求記号	一般貴重書 1-66 夕 4 貴
登録番号	120255



이 책은 朝鮮의 第4代王인 世宗의 第七男 平原大君 李琳(1427-1445)이 소장했던 것이다. 이 책 卷30 第1張 등에 平原大君의 藏書印인 “勤行之堂”이 찍혀 있다. 平原大君의 字는 珍之, 號가 謹行堂이다. 그는 아주 英特하였으나 질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大學衍義』는 高麗末부터 國王의 經筵에서 자주 進講되어 朝鮮時代에 여러 판본이 나왔다. 또한 朝鮮에서는 『大學衍義』의 類編이나 節略本도 만들었다. 즉, 朝鮮 第3代王 太宗은 1409년에 金科에게 『大學衍義類編』을 편찬하게 하였다. 成宗 3年인 1472年 4月에는 李石亨 등이 『大學衍義』를 刪節하고 『高麗史』의 事績을 첨가한 『大學衍義輯略』 21卷 10帙을 올리자, 成宗은 典校署로 하여금 목판으로 간행케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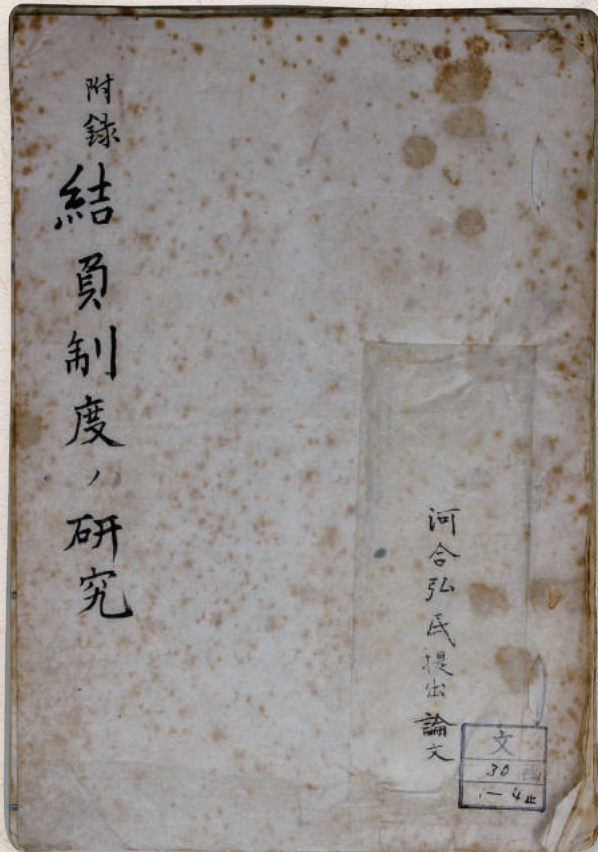
京都大學付屬圖書館藏 初鑄甲寅字本은 조선에서 간행된 가장 이른 시기의 『大學衍義』 판본이다. 印出記의 宣德九年은 1434年(世宗16)에 해당한다. 京都大學人文科學研究所에도 殘卷 1책이 있으며, 역시 ‘勤行之堂’의 陽刻 方形朱印이 捺印되어 있다.

(沈慶昊)

12 李朝税制ニ関スル研究



河合文庫の収集者である河合弘民氏（1872-1918）が、大正5（1916）年に京都帝国大学に提出した博士論文。青罫線半面11行の原稿用紙に毛筆細字で書写されており、総計約500枚余りに達する。本論は、「総論」につぎ「第一期 開国ヨリ大典編成ニ至ル約八十年」、「第二期 大典編成後大同法施行ニ至ル約百八十年」（以上第1冊）、「第三期 大同法設置ヨリ均役法制定ニ至ル約百年間」（第2冊）、「第四期 均役法後開国五百三年甲午新政ニ至ル約五十年間」に分けて各種税制の沿革を述べる。「大典」は『経世大典』（1469）、「大同法」は光海君1（1608）年から孝宗2（1651）年にかけて順次施行された貢納制にかかわる新税法、「均役法」は英祖26（1750）年に施行された軍制、財政改革にかかわる新税制、「甲午新政」は高宗31（1894）年の近代化改革（甲午更張）を指す。「総論」の時代区分では「第五期 甲午以後今日ニ至ル」もあるが、これは対象にしないと述べる。附録「結負制度ノ研究」の「結負」とは、税制の基礎をなす農地の面積および収穫量の単位である。全篇に河合文庫所蔵の丁若鏞『経世遺表』、『牧民心書』、李珣『栗谷全書』等多数の書籍および文書が引用されており、河合氏が収集した資料をもとに本論文を執筆したことがうかがわれる。



書名	조선세제에 관한 연구
著者	河合弘民 (1872-1918)
発行	1916
形態	3冊; 22.4 × 16.8cm
注記事項	附録: 「結負制度ノ研究」 1冊
請求記号	旧制 文 20 (附属図書館)

가와이문고 수집자인 가와이 히로타미(河合弘民, 1872-1918) 박사가 大正5年(1916)에 京都帝國大學에 제출한 박사논문이다. 푸른 罫線, 半面 11行 原稿用紙에 毛筆細字로 書寫되어 모두 500여 장에 이른다. 本論 부분은 「總論」에 이어 「第一期 開國부터 大典編成에 이르는 약 80년」, 「第二期 大典編成後 大同法施行에 이르는 180년」(이상 第1冊), 「第三期 大同法設置부터 均役法制定에 이르는 약 100년간」(第2冊), 「第四期 均役法後 開國五百三年甲午新政에 이르는 약 150년간」으로 나누어 각종 세제의 연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大典」은 『經世大典』(1469), 「大同法」은 光海君 1年(1608)부터 孝宗2年(1651)에 이르기까지 순차 시행된 貢納制와 관련된 새로운 稅法, 「均役法」은 英祖26年(1750)의 軍制 財政改革과 관련된 新稅制, 「甲午新政」은 高宗31年(1894)의 近代化改革(甲午更張)을 말한다. 「總論」의 시대구분에는 「第五期 甲午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있으나, 이는 대상 외로 되어 있다. 부록 「結負制度의 研究」의 「結負」란 稅制의 기초가 되는 農地 면적 및 收穫量의 단위이다. 前편에 河合文庫 소장의 丁若鏞의 『經世遺表』 및 『牧民心書』, 李珣 『栗谷全書』 등 많은 서적과 고문서가 인용되어 있어 가와이 박사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본 논문을 집필했음을 알 수 있다. (金文京)

京都大学における貴重資料の修復について

고토대학에서의 귀중자료 복원에 대하여

この展示会は高麗大学校民族文化研究院、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京都大学附属図書館の三者間協定に基づくプロジェクトの成果の一部です。本プロジェクトにより、附属図書館貴重書庫で保管されていた多くの韓国古文献に光が当てられました。調査研究に先立って修復を必要とする資料も約70点あり、附属図書館がこれを担当しました。

今回展示している『金石集帖』は総数200巻を超える18世紀朝鮮の拓本集です。現在ではすでに失われたり、風化により判読が難しくなったりした石碑も含まれており、当時の様子を伝える貴重な資料ですが、過去に遭った水損、虫損のためページを開くことも困難な巻もありました。専門業者による解体、フラットニング、洗い、漉き嵌めなど多くのプロセスを経てページを健全な状態に戻し、再度綴じ直すことで今日ご覧いただけるような姿になりました。また、『経世遺表』も虫損がひどく内容を詳細に確認することが難しい状態でしたが、修復を経て調査を行った結果、原本に非常に近い写本であることが分かりました。

貴重資料はその内容もさることながら、「モノ」としての価値も備えています。使用された素材、造本の技術、過去の修復跡など、全てに意味があります。修復の際に除去された古い素材などが将来的に研究対象となる可能性があるため、廃棄せずに修復済み資料とともに保管されます。『金石集帖』のように編纂年が明記されていない資料の場合、使用されていた古い綴紐が年代推定のヒントになりますし、裏打ちや芯材に使用されていた反故紙からまったく関連のない当時の文書が現れたりもしました。このように修復は資料の保存だけでなく、利用においても新たな視点を提供する貴重な機会でもあります。近年ではこれに電子化という技術が加わることで、時間的、地理的制約を超えた、新たな利用の可能性が開か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京都大学には約50の図書館・室があり、2018年現在の蔵書総数は約702万冊にも上ります。創立120年を超えるその歴史にふさわしく、蔵書には古典籍を始めとして多くの貴重資料が含まれています。しかし少なくない資料が経年劣化、利用や環境要因の破損等の問題を抱えており、個々の図書館・室での修復にも限界もあります。京都大学ではこれを全学的な課題とし、2010年度から2011年度にかけて実施した修復を必要とする貴重資料の調査に基づき、教員・職員が協同して長期的な視点に立った修復計画を立案しました。図書館・室やコレクション単位ではなく、「博物学」「経典」「文学」といったテーマ別計画を複数年にわたって実施することで、広範な資料の修復を実現しています。図書館機構では修復の成果報告としての公開展示をこれまでに3回開催してきました。

京都大学では貴重な資料を後世に残すための保存と、将来にわたる研究利用との双方を実現するため、今後も修復を続けていきます。



Befo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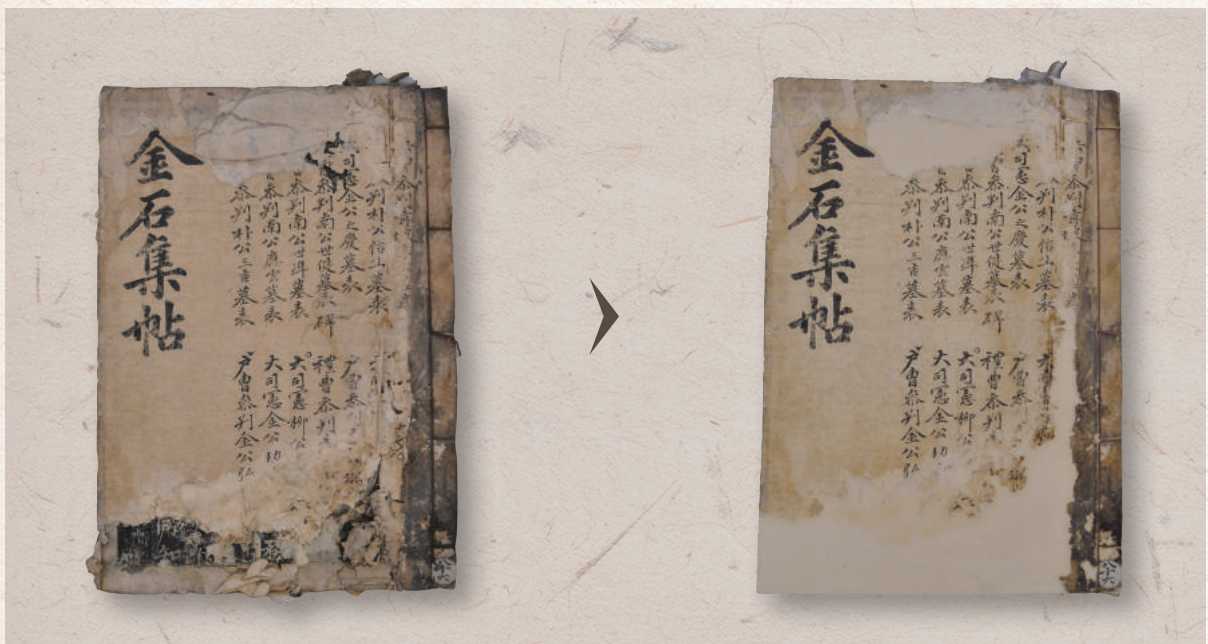
After

이번 전시회는 교토대학 부속도서관, 인문과학연구소와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세 기관 간의 협정에 의거한 프로젝트 성과의 일부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의해 부속도서관 귀중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많은 한국고문헌이 햇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조사 연구에 앞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자료도 70점이나 되어 부속도서관이 그 작업을 담당했습니다. 이번에 전시하고 있는 『金石集帖』은 총 수가 200권이 넘는 18세기 조선의 탁본집입니다. 이미 없어지거나 풍화에 의해 판독이 어려워진 비석문도 있고, 당초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기는 하나 과거에 습기나 벌레의 피해에 의해 페이지를 열기조차 어려운 것도 있었습니다. 전문업자에 의한 해체, 프라트닝, 빨기, 뜨기, 끼기 등 많은 절차를 거쳐 종이를 건전한 상태로 회복하고 다시 장정하여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모습으로 재현되었습니다. 또 『經世遺表』 역시 벌레 피해가 심하여 내용을 자세하게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복원을 거친 후 조사한 결과, 원본에 아주 가까운 필사본임이 밝혀졌습니다.

귀중 자료는 책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거니와 책 자체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책에 사용된 소재, 책을 수리하는 기술, 과거의 복원 흔적 등이 모두 의미가 있습니다. 복원할 때에 제거된 낡은 소재도 장래에 연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폐기하지 않고 복원이 끝난 자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습니다. 『金石集帖』과 같이 편집년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사용된 낡은 장정 줄에서 연대를 추정하는 힌트를 얻을 수 있고, 책장 이면의 보수나 芯材에 사용된 종이에서 전혀 관련이 없는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복원 작업은 자료의 보존만이 아니라 이용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을 제공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근년에는 디지털화라는 새로운 기술이 첨가되어 시간적 지리적 제약을 넘어서 새로운 이용 방법의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에는 약 50개의 도서관 및 도서관실이 있어 2018년 현재 장서 총수가 약 702만 책에 달하고 있습니다. 창립 120년을 넘는 그 역사에 어울리게 장서에는 고전적을 비롯하여 많은 귀중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자료가 시간이 지날수록 훼손이 심해지고, 이용자 또는 환경 요인에 의한 파손 등의 문제가 생기지만 각 도서관 및 도서관실에 의한 복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이 문제를 전교적인 과제로 삼아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걸쳐 실시된 복원을 필요로 하는 자료를 조사하고 교원과 직원이 협력하여 장기적인 시점에 입각한 복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도서관과 도서관실, 컬렉션 단위가 아니라 박물관, 경전, 문학 등의 테마별 계획을 세우고 여러 해에 걸쳐 광범위한 자료의 복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도서관 기구에서는 복원의 성과보고를 겸한 공개전시를 지금까지 3번 개최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귀중한 자료를 후세에 남기고 오래도록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두가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 이후에도 복원 작업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Before

After

資料電子化と画像のインターネット公開

자료 디지털화와 화상의 인터넷 공개



共同事業において電子化対象とする資料は、2015年から2018年までの間に5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資料調査により決定し、同期間に5回、それぞれ数週間から1ヶ月以上に及ぶ撮影作業を行いました。撮影前には資料が撮影に耐えうる状態であるかを確認し、必要に応じて修復を行ってから電子化しましたが、修復を必要としない場合でも、経年劣化によりもろくなったり部分的に虫損や水損の被害を受けたりしたものがあり、撮影には細心の注意を要しました。対象資料をデジタルカメラで原資料に対して300dpiの解像度を確保して撮影し、資料の形態によっては分割撮影も行いながら、電子画像を作成しました。

一方、各資料の書誌情報については、資料調査の成果をもとに韓国側で韓国語データを作成し、日本側で解題等を日本語に翻訳しました。さらに、資料によっては画像ごとの翻刻テキストも準備しました。

こうして作成された電子画像と書誌情報・解題は、「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https://rmda.kulib.kyoto-u.ac.jp>)及び高麗大学校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ウェブサイト(<http://kostma.korea.ac.kr/>)で順次インターネット公開し、長く保存するために物理的な利用を制限せざるを得ない資料でも、場所や時間に制約されることなく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りました。

「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は、京都大学が所蔵する貴重資料の電子画像を自由に閲覧できるウェブサイトで、2017年12月に正式運用を開始し、2018年12月末現在11,350タイトル、1,047,928画像を公開しています。画像データの相互運用性とアクセス性を向上させる国際規格I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に対応し、高解像度の画像をスムーズに閲覧可能なビューワーを備え、外部ビューワーからもアクセスできる汎用性を持っています。また、本デジタルアーカイブの正式公開と同時に、附属図書館所蔵資料については、所蔵館を(画像を改変した場合はその旨も)明記することで画像の二次利用を自由化し、誰もが学術・創造活動に自由に使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京都大学では、京都大学貴重資料デジタルアーカイブ基金(<http://www.kulib.kyoto-u.ac.jp/about/1378633>)を設置して事業の意義に賛同いただける方からのご寄付も募りながら、これまで守り伝えられてきた資料を世界に発信することにより、学術研究を推進し、教育や文化の発展に貢献しています。

共同事業からデジタル化対象として採集された資料は2015年から2018年までの間に5回にわたって行われた資料調査により決定し、同期間に5回、それぞれ数週間から1ヶ月以上に及ぶ撮影作業を行いました。撮影前には資料が撮影に耐えうる状態であるかを確認し、必要に応じて修復を行ってから電子化しましたが、修復を必要としない場合でも、経年劣化によりもろくなったり部分的に虫損や水損の被害を受けたりしたものがあり、撮影には細心の注意を要しました。対象資料をデジタルカメラで原資料に対して300dpiの解像度を確保して撮影し、資料の形態によっては分割撮影も行いながら、電子画像を作成しました。

한편 각자료의 서지정보에 관해서는 자료조사 성과에 의해 한국측이 한국어 데타를 작성하고 일본측은 해제 등을 일본어로 번역했습니다. 또한 자료에 따라서는 각 화상 별로 달초 텍스트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성된 디지털 화상과 서지정보 및 해제는 「교토대학 귀중자료 디지털 아카이브」(<https://rmda.kulib.kyoto-u.ac.jp>) 및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웹사이트(<http://kostma.korea.ac.kr/>)에서 순차 인터넷 공개를 하여, 장기 보전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이용을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자료도 장소나 시간 제약 없이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교토대학 귀중자료 디지털 아카이브」는 교토대학이 소장하는 귀중 자료의 디지털 화상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로, 2017년 12월에 정식 운용을 시작했고 2018년 12월말 현재 11,350 타이틀, 1,047,928 점의 화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화상 데이터의 상호 운용성과 액세스성을 향상시키는 국제 규격 IIIF(International Image Interoperability Framework)에 대응하고 높은 해상도의 화상을 손조롭게 열람할 수 있는 뷰어를 갖추고 있으며 외부 뷰어에서도 액세스 할 수 있는 범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디지털 아카이브의 정식 공개와 동시에 부속도서관 소장 자료에 관해서는 소장관을(화상을 개변했을 경우에는 그 것도) 명기하여 화상의 이차 이용을 자유화하여 누구나가 학술 및 창작 활동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교토대학에서는 교토대학 귀중자료 디지털 아카이브 기금(<http://www.kulib.kyoto-u.ac.jp/about/1378633>)을 마련하여 사업의 의의에 찬동해 주시는 분들의 기부도 모우면서, 지금까지 보전해 온 자료를 세계에 발신하는 사업을 통해 학술 연구를 추진하고 교육과 문화 발전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 監修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総説 朴英敏（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解題 鄭雨峰（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海外韓国学資料センター センター長）
沈慶昊（高麗大学校 漢文学科教授）
朴英敏（高麗大学校 民族文化研究院 研究教授）
安承俊（韓国学中央研究院 古文書實室長）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翻訳 金文京（鶴見大学教授、京都大学名誉教授）

貴重書公開展示ワーキング・グループ

- 梶山暢子（京都大学附属図書館利用支援課課長補佐）
赤澤久弥（京都大学附属図書館図書館企画課課長補佐）
大村明美（京都大学附属図書館図書館企画課図書館企画掛専門職員）
野村まり子（京都大学附属図書館学術支援課資料整備掛）
村上史歩（京都大学附属図書館学術支援課学術支援掛）
小松原記子（京都大学附属図書館利用支援課利用支援掛）
小堀淳子（京都大学人文科学研究所附属東アジア人文情報学研究センター事務掛掛長）

平成 30 年度京都大学図書館機構貴重書公開展示
『韓国古文献の世界』

2019 年 2 月 19 日発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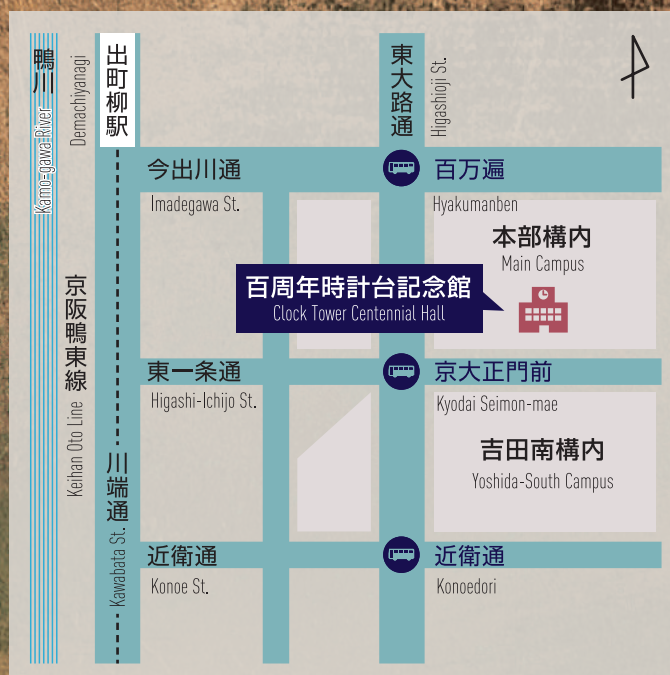
編集・発行 京都大学図書館機構
〒606-8501 京都市左京区吉田本町
<http://www.kulib.kyoto-u.ac.jp/>

デザイン・印刷 インターマキシス株式会社

本資料は平成 30 年度京都大学図書館機構貴重書公開展示
『韓国古文献の世界』の図録として作成されました。

会期 2019 年 2 月 19 日～ 3 月 3 日

会場 京都大学百周年時計台記念館
歴史展示室内企画展示室



会場

京都大学百周年時計台記念館
歴史展示室内企画展示室

入場無料

会期

平成31年

2月19日(火) ~ 3月3日(日)

開室
時間

9:30~17:00

主催/問い合わせ先

京都大学図書館機構

〒606-8501 京都市左京区吉田本町

TEL.075-753-2613

<http://www.kulib.kyoto-u.ac.jp/>